

벼 꽃이 피는 시기에 화분 채집



안녕하세요? 경북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창우입니다. 요즘 벼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주최 벼, 전, 특작 중간 평가회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경북 영덕, 포항, 경주, 상주 등 시군에서는 300ha, 500ha 씩 벼 무농약 재배를 벌써 3년간 재배하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들이 무농약 인증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판매는 문제 없습니다. 더욱더 관심이 가는 분야는 지난 3년간 무농약으로 쌀을 생산하였으나 처음에는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으나 큰 피해 없이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이제는 자심감마저 붙었습니다. 그러나 더 반가운 것은 벼 꽃이 (보통 오전 9시 ~ 11시 사이 개화) 피면 무농약 재배 벼 단지에 꿀벌이 요란하게 화분을 채집한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꿀벌박사들은 벼꽃이 피는 시기에 화분을 많이 채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서적을 통하여 읽을 수 있었지만 현장을 통해 본 무농약 쌀 단지에 그렇게 많이 꿀벌이 붙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꿀의고장" 칠곡군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꿀벌의 생태를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꿀벌박사들의 말을 빌리면 벼 꽃이 아무리 자가 수정이지만 양봉(꿀벌)이 화분을 채집하면서 수정(수분)을 도와주면 쌀이 더 충실해지고 밥맛도 한층 더 맛이 있습니다. 붙임 사진은 영덕군 병곡면 병곡들에서 꿀벌이 화분 채집한 장면을 올립니다. (꿀벌의 발에 노란 덩어리가 화분을 채집하여 꿀벌이 사는 벌통으로 옮겨 가기 위하여 발에 동그랗게 달았음) "꿀벌은 인간에게 벌꿀을 선물하는 것 보다 143배의 자연생태계를 수정하는 효과가 있다" 고 미국 농무성이 발표를 하였으며 아인슈타인 박사는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의 수정작업이 안되어 식량 감소가 되어 4년내 인류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등 꿀벌이 우리군에 많아 귀한 줄 모르지만 벌써 미국은 꿀벌이 농작물 수정용이 모자라 호주에서 75%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붙임 사진 감상 하시고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자료제공 :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전창우